

#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 잊지 않을 터

## 제38호 자랑스런 안전인 KT&G 한승호 안전과장

촉촉이 내리는 봄비는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  
가와 겨우내 시름을 잊으라고 어깨를 토닥인다.  
그동안 자욱했던 그늘도, 찝뽀뽀했던 마음도 모두 잊혀진 어느 봄날, 강원도 원  
주에 위치한 KT&G에서 20여년의 노하우로 안전의 봄비를 촉촉이 뿌려주는 한승호 안전  
과장을 만나보았다.

1983년 전매청 원주제조창으로 준공되어 2001년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KT&G 원주제조창에서 1984년 2월부터  
약 22년간 안전업무를 맡아온 한승호 과장은 국영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에 휩  
쓸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근로자 개개인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스스로 지키는  
안전을 만듭시다.



### 나 스스로 지키는 안전, 여유있는 마음에서 출발

흔한 말로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한다. 내가 존재하기에 가족  
도 있고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승호 과장은 근로  
자 개개인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스스로  
지키는 안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한다. 개인이 안전을  
지키다 보면 회사 전체의 안전은 당연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을 함께 당부  
한다. 서두르면 안전도 이룩할 수 없기에 한번 더 생각하는 여유  
를 가지고 작업에 임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생산성 향상에도 크  
게 기여한다.

이외에도 한승호 과장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더욱 큰 관심을 쏟는다. 인력 운반을 최소화시키고 각 업무특성에 맞는 스트레칭  
및 체조 등을 도입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이 두드러진 이곳에서 그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습하고 각종 대회에도 참여한다. 배드민턴을 통해 건강관리는 물론, 직원들과의 관계  
도 좋아져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견문을 넓히고 외국의 선진안전문화를 배우기 위해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는 현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안전인이다. 그 마음 그대로 이어나  
가, 비록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존중이라는 안전의 기본이  
념을 되새기며 안전관리자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잊지 말고 본  
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안전인의 마음가짐을 되새긴다.



〈성호연 기자〉